

生活慢筆

尹 太 鉉

사람은 누구나 그 나름대로의 얼굴을 가지고 태어났다. 얼굴이 닳은 때는 혹 있어도 똑같은 사람은 없다. “아무게 말이지”하면 우선 얼굴 생김새가 어떻든가 더듬는다. 다음이 무엇을 하던가고, 職業을 찾는다. 이름과 얼굴, 그리고 職業은 우리 平生을 지긋지긋 따라 다닌다.

얼굴은 그 사람의 看板구실을 한다. “人相이 좋다”하면 “人相이 나쁘다”보다 우선 한점 따고 있는 셈이다. 이름이나 職業은 경우에 따라 바꿀수도 있다. 그러나 얼굴은 그리 쉽지않다. 사기꾼 전과자로 낙인찍힌 얼굴은 어디어느때 그 얼굴이 탈바꿈하기 어렵다. 사람의 感情은 얼굴에 먼저 나타나게 되어있다. 없을때와 있을때, 기쁠때와 슬플때, 화났을때, 즐거울때, 얼굴 表情으로 알수있다. 없어도 있는척, 슬퍼도 기쁜척 하기란 그리 쉽지 않다. 이 척을 잘하면은 一流 俳優가 된다.

없어서 우는 상을 하는것은 어쩔수 없는 일이지만 同情을 強要하는것 같아 醜해 보인다. 있어도 우는 상을 하는것은 실속있을런지 모르나 엄살을 떠는 꼴이 本是 醜해 보인다. 있으나 없으나 左右間 우는相은 醜해보이니 하지 않는것이 좋겠다. “一笑一少, 一怒一老”라 하였다. “웃는 낮에 침뱌어라”라고도 하였다. 우는 상, 찌푸린 상은 재복도 제대로 찾아먹지 못한다고 볼수 있다. 그렇다고 억지로 웃는 상만 가지고 다니라고 할수는 없다. “울어야 젖주지”라는 말도 있으니 아프거나 배가 고파 우는 것이 어린이와, 슬퍼서 운다는 것은 좀 어른스런데가 있다. 어린이는 낮은 밝고 귀엽다. 그만큼 世上風波를 모르고 純眞한 까닭이다. 物價가 오르거나 税金하고는 関心없는 얼굴이다. 看護員이 明朗하고 웃는 낮으로 患者를 처할때 患者는 고맙고 따듯한 情을 느낀다. 아프고 괴로와 우는 낮을 하다가도 看護員의 상냥한 웃음으로 낮빛이 풀어진다. 집안에서, 거리에서, 車안에서 우리 周圍의 모든것이 나를 爲해 살고 있다고 想像해 보자. 그래도 우는 상, 찌푸린 상으로 다니는 自身이 부끄럽지 않는가. 그렇다고 억지로 웃는 상을 만들어 가질수는 없다. 다만 나보다 더 슬픈 사람, 나보다 더 없는 사람이 다 나때문에 나를 爲하여 살고있다고 생각하면 어떨까? 웃는 얼굴이 내 주위에 가득차고 내 얼굴이 늘 웃는 얼굴이 되었을때 어찌 是非가 있겠는가. 살기 싫다고 누가 말하겠는가. 얼굴이 더럽다고 씻기전에 마음의 때부터 씻어보자. 看護員에게 案内嬢에게 고맙다고 한마디 해보자. 길에서 서로가 고맙다는 인사를 얼굴에 가져보자. 찌푸린 얼굴이 웃는 얼굴로 變했을때 地上의樂園에서 幸福한 生活를 하고있는 人間을 볼것이다.

○ 寄生虫

악어 입속의 寄生虫을 새가와서 쪼아먹는다. 악어의 虫齒를 고쳐주고 새는 새대로 재미본다. 소매치기에게 上納 받는 警官이 있다고 한다. 이는 寄生虫의 寄生虫이라고 할까. 娼婦周迎辺의 강패나 포주, 權力에 매달려 서식하는 政商輩社會의 寄生虫은 곳곳에 있다. 사람의 몸속에 寄生虫을 가지고 있다. 아무리 잘났어도 別수없이 가지고 있기 마련이다.

寄生虫은 獨立하여 살수는 없다. 어느 母體에 붙어서만이 살수있다. 따라서 母體의 힘이 딸려 쓰러질 때까지 그 壽命이다. 좋게 말해서 身同體라 하겠다. 運命을 같이 한다고 할까. 피를 팔아 받은 돈을 가로챈 놈이 있다. 寄生虫도 利로운게 몇% 있다지만 이는 全혀 害虫이다. 도둑집에 도둑이 들었다고 한다. 웃어볼 일이다.

몇十億 國有地를 꿀꺽 삼키고 꺼떡없이 산다고한다. 그러면서 密輸犯은 어떻니, 도박은 어떻니 떠들어 댈다. 모두가 寄生虫이다. 크고 작고가 다를 뿐이다.

母體를 살려 놓고 自己도 살아야 한다는 것을 寄生虫은 모르고 있다. 갈겨 먹고 뜯어 먹다가 母體가 쓰러지면 自身도 끝장이다. 寄生虫 노릇을 할 바에야 義鬻蟲 지켜 싹 틔우지 않는데 그렇지 못하다. 스타-린의 理護員들은 돈모르는 스타-린을 팔고 돼지같이 살찌 살았다고 한다.

權力에 아부하고 돈에 굶으며 살아가는 人間이 점점 늘어난다. 農藥이나 法으로 寄生虫을 없애는 수는 있다. 그러나 藥의 過用으로 害虫아닌 良虫이 다치게 된다. 눈에 개구리 거미가 없어져 간다. 藥없이 農事를 잘하던 때가 부럽다. 害虫을 利虫으로 바꾸는 方法이 없겠는가. 몸에 붙어 사는 寄生虫은 그런데로 共存하고 있다. 허나 마음의 寄生虫도 共存하고 있으니 탈이다. 어린이가 어버이 덕으로 사는 것은 事實이다. 그러나 어느程度가 問題다. 平生을 ○○을 依持해야 산다는것, ○○때문에 不幸하다는것, ○○이 있어야 산다는것 등등, ○○은 自己以外의 存在다. 自己없는 世上이 있는가.

○ 流行病

요즘 선 그라스가 流行이다. 마치 얼굴이 안경인지 안경이 얼굴인지 잘 분간하기 어렵다. 저 작은 코에 어떻게 안경이 언처있는지 자세히 보게 된다. 누가 어떤 意味에

서 始作된는지, 아마 自己를 좀더 봐 달라는 女性의 心理作用을 十分 活用한 아이디어맨의 着想인지' 세삼 경의를 갖는다. 허나, 저 크기, 저 보름이 눈에 거슬린다. 美的 觀念에서 볼때도 問題가 있다. 아무리 좋고 예뻐도 보는 사람만 不安하고 어색하면 美学点을 그리 줄수없다. 더욱이 저 무게를 몇 時間 견딜까, 同情마저 간다. 그런데 더 큰것이면 좋은데……" 찾는다. 자꾸 커지면 어찌될까. 好奇心 걱정이 생긴다. 봐주는 것도 程度다. 보는 立場을 좀 생각해 주는 아량이 流行에 있었으면 오죽 고마운가.

웬 아가씨가 거리가 좁다하고 걸어간다. 늘씬한 키, 청바지에 난방샤스, 따라가 車를 타고 자세히 보니 콧수염을 길렀다. 女子도 콧수염이 나던가, 혹시 내 머리가 돈 것이 아닌가.

“머리가 긴 것이 女子요, 짧은 것이 男子다”

라는 定義가 웃음거리로 되었다. 理髮할적마다 이 머리를 자를까 기를까 망서리게 된다. 남들이 기르니 나도 길러야 할텐데, 이 나의 숫적은 머리는 도통 마땅치 않다. 대머리에다 솜털같은 머리가 길어봐야 길수록 끝不見이다. “손님 요세 流行인데……”어찌구 하는 바람에 울상을 하면서 그냥 기를수 밖에 없다. 이 流行바람에 내 몸도 내 마음대로 못 한단 말인가. 말도 않된다. 그냥 박박 깎아버리고 싶다. 잘하면 이것이 流行이 될지……

流行病은 집에까지 들어왔다. 建築家는 집을 設計해 주는 것이 本業인데 거꾸로 집장사가 設計를 해오면 그냥 許可만을 내준다. 佛蘭西式이다. 英國式이다 하는 지붕을 그대로 再탕 三湯 써먹는다. 創作이다 무슨○○소리냐. 보기 좋고 보기 싫고 쓸모 있고 쓸모 없고가 問題냐 그냥 해달라는 대로 해주면 되지 않느냐는 式이다.

그래도 流行上 머리를 써서 달리 좀 計酬해 주면 말이 많고 時間이 걸린다. 收入이 그나마 關係된다. 代書나 許可手續에 무슨 費用이 그리 비싸냐는 투다. 勿論 全般의 인 경우는 아니나, 大概번두리의 現實이 그렇다. 옷이 내 몸에 맞아야 입듯이, 집도 내 生活에 맞아야 살텐데 이렇게 되면 既成服이나 既成家만이 판치고 있다. 맞지 않아도 어거지로 입고 다녀야 하는 처지다.

○ 공 짜

어떻게 된 셈인지 “공짜를 바라면 대머리가 된다.” 따라서 “대머리는 공짜를 바란다”라는 말이 通用되고 있다. 眞否如何問에 대머리인 処地로 보면 늘 이 말에 關心이 가고 꺼림직도 하다. 하필이면 대머리에게한 해당시킬 것이 무엇이나 이 말이다. 따져보면 世上萬事가 공짜로 생겨났으며 누구나 공짜로 생겨났으며 누구나 공짜로 이 惠拂을 받고 있는것이다. 太陽이나, 空氣, 물, 여기서 생기는 고기, 곡식, 면직 地下資源등이 모두가 공짜 가닌가, 다만 이를 잡고 가꾸고 캐내는 手苦가 있기에 사람들은 이를 쓰게되고 먹게되는 것이다. 果實이 내입에 들어가려면 商

人에게 돈을 支拂하고, 商人은 市場에서, 市場에선 果樹園 主人에게各自 手苦의 代價를 支拂하면 되는 것이다. 돈은 手苦의 代價다. 自己것은 돈을 주어야 自己것이 된다. 내것은 原來 내것이 아니다. 代價를 支拂하니 내것이 된다. 따라서 저 집도, 저 車도, 저 옷도, 저 고기도 내 것이 될수 있다. 돈만 支拂하면 된다. 그러나 내것이 될수 없는것, 돈 가지고도 살수 없는것이 있다. 돈이 많아 잘 살아도 돈이 없어 가난해도 사람은 命이 있게 마련이다. 이 壽命은 돈으로 살수 있을까. 사람이 命을 유지하는데 苦惱가 있다. 天下統一하고 부러울것 없는 奏始皇도 命을 사러 不老草를 求하려 했다. 사람은 命이 다하면 萬事가 마지막이다. 내것이 아무리 많아도 죽고 보면 그만이다. 空手來 空手去다. 그러나 주어진 命을 어떻게 지켰느냐 얼마나 애썼느냐 무엇을 하였느냐에 따라 공짜 人生의 代價를 支拂한 것이 된다. 生命은 살수는 없으나 代價는 있는 것이다.

○ 남의 다리

잠결에 한참 굶다 보니 남의 다리였다는 말이 있다. 내 다리가 가려운데 술이 취했는지 꿈이 한창인지 몰라도 남의 다리를 手苦스럽게도 긁어 주었겠다. 좀 곰같은 것이지만 슬며시 우습기도 하다. 재주는 꿈이 부리고 돈은 ○○가 번다. 고도 한다. 打算에 치우쳐 돈에만 幸의 基準을 둔 現代人으로 볼때 천치 바보 짓이라 비웃는다. 事實이 또 그렇다. 빈틈 없이 똑똑하고 찢러도 피 한방울 안나는 쪽이 많은 이때, 情에 흔들리고 남에게 利用만 當하는 쪽은 確實히 바보, 천치라고 해도 할말 없다. 그러나 바보, 천치가 아주 없는 世上을 한번 생각해 보자. 모든 生活이 機械나 컴퓨터같이 판에 박은 規則的이며 눈물, 콧물이란 찾아볼수 없는 너는 너, 나는 내가 뚜렷한 世上이다. 마이 카- 마이 홈 밖에 안중에 없다. 옆에 누가 쓰러져도 남은 甦不關이다. 내가 쓰러져도 남은 甦不關이다. 이때 바보라도 손을 내밀면 어쩔까, “水至清即無魚하고 人至清即無徒”라 하였고 “德不孤, 必有隣”이라고도 하였다. 물이 너무 맑으면 고기가 안온다는 뜻이고, 德이 있으면 외롭지 않다는 뜻이다. 德은 바보일수 있으며, 天才일 수도 있다. 반듯한 나무만 있다고 山이라고 할수 있는가, 雜草도 있고 꽃과 바위도 있는 법이다. 서로가 營키고 共存함으로서 山이되고 泰山이 된다. 가뭄에 논에 물을 대는 늙은 農夫가 終日 드레박으로 퍼올리고 있다. 그는 楊水機보다 이쪽이 그의 할일로 알고 있다. 車안에서 學生끼리 가방을 받아주던 것이 이제는 너 나없이 짐이면 받아준다. 남의 가려운 다리를 미친척 하고 한번 긁어주지 않겠는가.

○ 구 두 쇠

구두쇠 하면 쇠만큼 단단하게 느껴진다. 쇠는 돈이니까 돈이 굳었다고 구두쇠라 한 것인가 모르겠다.

돈이 없어서 못쓰는 것은 理解가 간다. 돈이 있는데 안

쓰는 것은 무슨 事由가 있을 것이다. 事由도 없이 쓰지 않고 버티는 것이 구두쇠란다. 數億 財産이다 큰소리 치면서 點心때 라면으로 겨우 때우는 친구가 있다. 술은 안 마신다 하면서 사주면 잘 마신다. 담배까지 얻어핀다. 점점 돈에 맛이 들어 利子놀이까지 한다. 아무리 親해도 利子없이 돈 貸出 않한다. 모두가 돈. 돈이면 最高다. 돈을 主人으로 섬기고 이 主人의 命令에 絶對服從이다. 무슨 일이고 할수 있는 勇氣(?)를 가졌다. 平生 運命이요, 地上課業으로 믿고있다. 이 친구가 病에도 구두쇠인지 病도 없었다가 日前에 갑자기 쓰러져 入院하게 됐다. 죽기 直前에서 겨우 意識을 찾고 보니 入院費, 注射, 藥代등이 아깝다고 退院했다. 집에는 그의 財産을 相續받을 資格者만이 熱心히 看護(?)하고 있다가 그가 저 世上으로 가기를 기다리고 있다. 다정한 친구가 있을수 없다. 죽고나니 죽음을 슬퍼할 사람이 별로 없다. “아까운 사람이다”라고말해주는 친구가 단 한사람도 있었으면 그나마 多幸이다. 자신이 있어서 돈이 있고 자신이 있어서 世上이 있다는 것을 왜 몰랐을까, 답답할 뿐이다. 自己무덤에 돈과 함께 묻어달라는 遺言이나 잊지 않았는지.

○ 헛 일

人生 七十이라고 하지만 사람이 먹고 자는 時間을 빼면 果然 몇年이나 될까, 나머지를 일하는 時間이라면 일에도

헛일이 허다하니 진짜 네 一生에 일했다. 무엇을 했다라는게 얼마나 될까. 헛手苦, 헛탕, 헛것등 마침내 헛 살았다에 이른다. 많은 宣傳費를 들인 廣告紙가 便所나 쓰레기통으로 直行한다. 石油가 나온다고 莫大한 돈을들여 바다밀을 파낸다. 숨을 허덕이며 山에 오르내린다. 이 모두가 헛것이 많다. “時間은 黃金이다” 名言임에 틀림없다.

事業家가 볼때 모두가 헛사는 사람들이다 作品한다고 平生을 종이와 붓으로 보낸다. 이런고 글을 쓰 있는 自身이 헛手苦 헛일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다. 먹으면 排出이 있듯이 만들면 物品이, 하면은 돈이 눈앞에 보이는 것이 헛일이 아니더라고 事業家는 定義한다. 그래서 努力하고 일하는 것이다. 그건 事實이다. 그런데 所謂 헛일단 하고 사니 어찌냐. 孔子는 “遊於世”라 하였다. 人生을 芸術과 더불어 놀고 산다라는 뜻이다. 一生을 일하고 돈버는데 보람을 느끼는 것과 正反對語다. 이 世上에 꽃과 노래가 없었다고 假定하자. 沙漠에서 물과 나무 없이 사는 격이다. 女子와 술을 禁하는 “사우디”에 다녀와서 다시 가라니 辭表를 낸 친구가 있다. 돈 벌이도 좋지만 사는 맛이 없다는 것이다. 人間이 機械일수는 없다. 機械는 헛일을 할수 없다. 그러나 人間만은 헛일을 할수 있다. 그리고, 헛일에는 눈물과 웃음이 가득 차 있다.

太極建築

보호받는 자연만이 나의 호흡맑게 한다